

중국산 소다회 66% 부과

中華河北進出區公司 등은 수출물량 제한 합의로 보류

중국산 소다회에 대해 향후 3년간 66.1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로 확정됐다.

최근 정부가 확정한 중국산 소다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에 따르면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내리면서 중국산 소다회에 대해 향후 3년간 66.1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중국의 소다회 수출업체중 중국하북진출구공사 및 중국화공건설총공사의 제품은 이들 업체가 수출물량을 축소키로 약속함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2월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무부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덤핑방지관세부과 방침을 확정하고 27일경 대통령령을 공포하는 시점부터 적용키로 했다.

중국산 소다회는 동양화학의 덤핑제소에 따라 지난 6월 하순부터 68.01~70.86%의 잠정덤핑관세가 부과돼 왔으며, 관세청이 산정한 확정덤핑률은 64.78~66.11%였다.

재무부는 중국수출기업 중 화북진출구공사 및 화공건설총공사측이 94년 및 95년에 각각 2만톤, 95년에는 1만5000톤으로 수출물량을 제한키로 약속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는 보류해 66.11%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무역위원회는 지난 11월17일 중국산 소다회가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산업피해 긍정 최종판정을 내렸다. 따라서 재무부는 1개월이내에 관세청의 덤핑마진을 최종판정(64.78~66.11%)의 범위내에서 확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돼 있었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판정을 통해 중국산 소다회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소다회산업이 생산, 가동률, 판매, 시장점유율 등의 감소추세에 따라 경영수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악화되고 있는 반면 같은 기간중 중국산 소다회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 국내 소다회가격의 하락을 선도하고 있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에 산업피해 판정이 내려진 중국산 소다회는 91년까지 수입이 미비했으나, 92년에는 2만7568톤이 수입되는데 이어 93년 상반기에는 3만8536톤이 수입, 시장점유율이 92년의 4.4%에서 12.5%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밝혔다.

또 동양화학은 연산 40만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국산의 덤핑공세로 가동률이 91년의 86%에서 92년에는 83%, 93년 상반기에는 73.1%로 낮아졌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화학저널 1993/12/20 · 27>